

C_M_032 사계본향 큰물당

1 개요

사계본향 큰물당본풀이는 안덕면 사계리 본향당인 큰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큰물당 하르방은 큰물에 논을 만들어 부자로 살다가 중을 만나 귀천을 깨닫고 주민들에게 논을 나누어 주었다.

2 내용

큰물당 조상은 한라산 섯어깨에서 무위이화(無爲而化)하여 솟아나 산방굴사로 내려섰다. 하르방은 산돼지 3백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쫓으며 산방산 아흔아홉골을 다 돌았다. 나막신을 신은 채로 큰물로 내려서 산돼지 3백 마리를 잡아 피를 빼어 먹었다. 큰물머리에 좌정 할 만하여 집을 짓고 살았다. 큰물 골짜기에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니 큰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와서 절을 수리하기 위하여 왔으니 시주를 해달라고 했다. 하르방이 헌 절을 수리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중이 귀천을 안다고 하였다. 하르방이 어떻게 귀천을 알 수 있느냐 하니, 중이 키 아홉 개를 매일 물에 씻어 이레동안 아침에 문전으로 올래까지 엎어놓고 타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하르방이 중의 말대로 하였더니 큰 비가 내려 수해가 나서 논의 벼가 다 휩쓸려 버렸다. 그때야 하르방은 귀천을 알겠다고 하고 논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 생긴 법으로 주민들은 해마다 큰물당에 벼 한 묶음씩 바쳤다.

3 특징

안덕면 사계리 여무 고인옥의 전승 자료이다. 전반부에서는 당신이 신의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나 후반부는 인간의 면모를 보인다. 하르방은 수렵을 하는 산신(山神)의 모습으로 나타나 귀천 모르는 부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중의 덕에 깨달음을 얻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당신으로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 드물게 논이 있는 곳에 당이 있고 주민들이 당에 벼를 바치는 전통이 있는 점이 주목된다.

4 핵심어

무위이화, 산방산, 큰물당, 사계리, 아흔아홉골, 나막신, 산돼지, 시주, 키, 수해, 벼, 산신, 당신

5 원전 서지사항

사계본향 큰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